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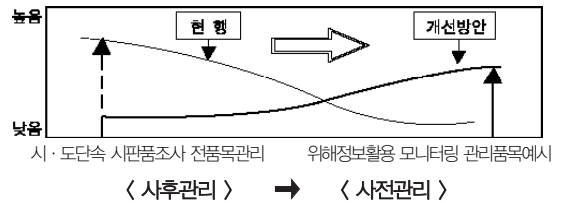
# 전기용품, 공산품의 「사전에시적 안전관리」추진계획

전기용품, 공산품,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정부 주도의 사후관리에서 민간의 시장감시 등을 통한 사전예시적 안전관리로 전환

## 1. 추진배경

- 최근 저가의 품질수준이 낮은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, 신제품의 출시가 증가하면서 안전위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
  - 시판품조사 및 사후단속만으로 소비자의 안전 사고 예방에 역부족
  - \* 수입(백만불) : 5,186('02) ⇒ 8,942('05),  
위해사례(건) : 1,903('02) ⇒ 3,875('05)
- 연중 시장을 감시하여 불법, 불량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위해 정보를 수집, 조치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제 도입 필요

- 모니터링 요원이 시장감시하고 위반업체에 시정권고, 정부에 조치 요청
- 동일한 안전관리자원의 배분전략을 달리하여 안전관리효율의 극대화



## 2. 사전예시적 안전관리 방안

- 소비자, 제조업자 등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를 최소화하여 민간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
- 1단계** : 정부는 안전관리대상품목과 기준을 공고
  - 안전위해성이 높은 품목 선정 ('06년 공산품 20품목, 전기용품 27품목)
- 2단계** : 공급자와 소비자(시장감시단)간 '자율안전이행협약' 체결
  - 생산자,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고 감시
- 3단계** : 민간 등 소비자에 의한 시장감시(안전모니터링) 실시

## 3. 세부추진계획

- 민간을 통한 시장감시 추진
  - 정부는 직접적인 시장관여는 최소화하며 제품 공급자와 소비자간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
  - 시장감시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되 분야별 전문성 활용 및 공정성 확보(전기, 생활, 화학제품 분야)
    - 분야별로 제품안전감시단 및 운영위원회 구성, 운영
- 자율안전이행협약 (SVA: Safety Voluntary Agreement) 체결
  - 제품 생산, 수입업체가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할 것을 감시단과 협약하여 자율안전관리를 유도
  - ⇒ 이를 위해 공급자-소비자(감시단)간 자율안전이행협약 체결

- 자율안전이행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및 지원
  - "자율안전이행 마크(SVA)" 부착하여 대국민 홍보 및 자율안전이행 확산
  - 시판품조사, 정기검사 등 사후관리 면제 등 검토

□ 제품 안전정보망 구축

- 관세청, 소보원 등 안전 관련기관과 신속한 공조를 통한 조치체계 마련
  - 유관기관 간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, 수집 (06.11 가동예정)
- 소비자가 정보망에 제품 안전사고 및 위해정보를 신고하고, 처리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체계 마련
  - 「정보관리센터」에 접수된 위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조치

**제품안전 자율이행협약식 개최**

- 일시 및 장소 : 2006. 7. 13(목) 09:40, 기표원 강당
- 참여대상 : 500명
  - 분야별 시장감시 운영주체, 시장감시단장 및 요원(50명)
  - 제품안전 자율이행 참여 희망업체(400업체), 안전관리기관(50명) 등
- 행사내용
  - 제품안전감시단장과 업체 대표간의 협약 (장관님 확인 서명)
  - 분야별 시장감시단 발대식(선서문 낭독)

□ 분야별 시장감시 운영 주체

-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: 전기용품
  - 단장: 박삼규 (대한상사중재원장)
-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: 화학용품
  - 단장: 박호군 (시립인천대 총장)
- 한국생활안전연합 : 생활용품
  - 단장: 김태윤 (한양대 교수)

□ 전기제품안전협회 제품안전감시단 조직도

\* 전기용품 자율안전이행협약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참고  
(www.ekesa.or.kr / Tel. 02-579-3291, Fax. 02- 578-3640)

